제 9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일자: 2026.7.6.

1. 회의 일시: 2026년 7월 6일(월) 17:00
2. 회의 장소: 온라인(Zoom)
3. 위원 정수: 11명
4. 재적 위원 수: 11명
5. 참석위원: 이경학(의장), 이민수(부의장), 이수연, 김윤경, 김기대, 홍석철, 서지영(학생위원), 김종관(외부위원), 임성아(외부위원)
6. 회의안건: 학칙 개정(안) 심의,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변경 관련 보고
7. 회의내용

- 성원보고: 간사(곽향미)가 재적 위원 11명 중 10명 참석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에 의해 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경학 의장: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제98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 곽향미 간사: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경학 의장: 전차 회의록 채택 여부를 묻다. 모해규 위원의 동의와 김윤경 위원의 재청으로 회의록을 채택하다.

● **학칙 개정(안) 심의**

- 이경학 의장: 안건을 상정하고, 교육개발처 조장호 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조장호 처장: 학칙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다.
- 조장호 처장: 9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 바탕으로 부속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여 산학협력단 소속인 창업지원센터를 학칙 대학 부속기관에서 삭제하였고, 97차 회의 후 일주일 동안 추가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하다.
- 이경학 의장: 위원들에게 학칙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요청하다.
- 이경학 의장: 학칙 개정(안) 심의에 대한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민수 위원의 동의와 김기대 위원의 제청으로 원안 가결하다.

●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변경 관련 보고**

- 이경학 의장: 기타 안건으로 상정한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변경 관련 설명을 요청하다.
- 조장호 처장: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졸업 이수학점을 변경하는 건이며, 지난 97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 주신 교육과정 개발 절차 준수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오늘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대학의 정책 방향성 관련하여 8월에 진행되는 하계워크숍을 통해 전 구성원 대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 회의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기로 하다.
- 조장호 처장: (자료 화면 공유) 미래 교육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구분한 4가지의 섹션(경험, 확장, 실험, 표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다.

- 조장호 처장: 각 스쿨에서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정규 교과를 통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 경험이나 확장 부분에 대한 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여러 가지 비교과들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경험과 관련된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비정규 교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투입한 인프라 대비 성과가 부족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국내·외 여러 학교들이 운영하는 경험학점제라는 제도, 즉 경험에 해당하는 비정규 교과를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였고, 체험 수준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경험들을 잘 엮어서 창작,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 매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그 역할을 교양교육원(리케이온)이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교양교육원 이민수 원장과 많은 논의를 하였고, 리케이온이 교양 수업 담당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중요성이 높아질 경험 교육과 전공 교육 사이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매개 역할로 확대하여 스쿨의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확장효과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교양 교육과정 확장의 일환으로 교양교육원의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교과 개발, 그리고 그 경험을 확장해서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스쿨의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시도하기 위해 지금 교양교육 이수학점이 10학점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이수하는 평균 학점은 15학점 정도로 확인되었음을 설명하고, 교양교육 이수학점을 15학점으로 확장했을 때 경험, 확장, 표현, 실험의 교육과정에서 경험과 확장이 각각 20% 정도를 담당하게 되고, 실험과 표현 관련 교과가 30% 정도이면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교양교육원과 교육개발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예산은 최소 9천만원 정도에서 최대 1억 5천만원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하다.
- 이민수: 예산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다. 이미 학생들이 평균 15학점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로 5학점보다는 적게 수강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한 반의 평균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단순계산하였을 경우 약 1억 4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중형과목과 대형과목, 여러 가지 분반 운영 계획이 있어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8~9천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1억 5천만원이지만 실제로 분반의 형태를 감안하연 9천만원 정도 추가가 예상됨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지난 주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향후 교육과정혁신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러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하계워크숍에서 관련 설명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민수: 학생위원으로 총학생회장도 참석하였고, 외부위원분들도 계시니 교양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예정인지 간단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다.
- 이민수: 이 자료는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사용한 자료로 교양교육이 내년부터 버전 2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발 운영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건강한 창의인재 양성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민수: 건강한 창작자란 몸과 마음, 관계의 3가지 영역에 해당하고, 탁월한 창작자라는 넓고 깊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춘 창작자를 기른다 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교양교육원에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스쿨 교육과정에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조장호 처장님이 요청하신 부분을 학기 내내 고민을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였음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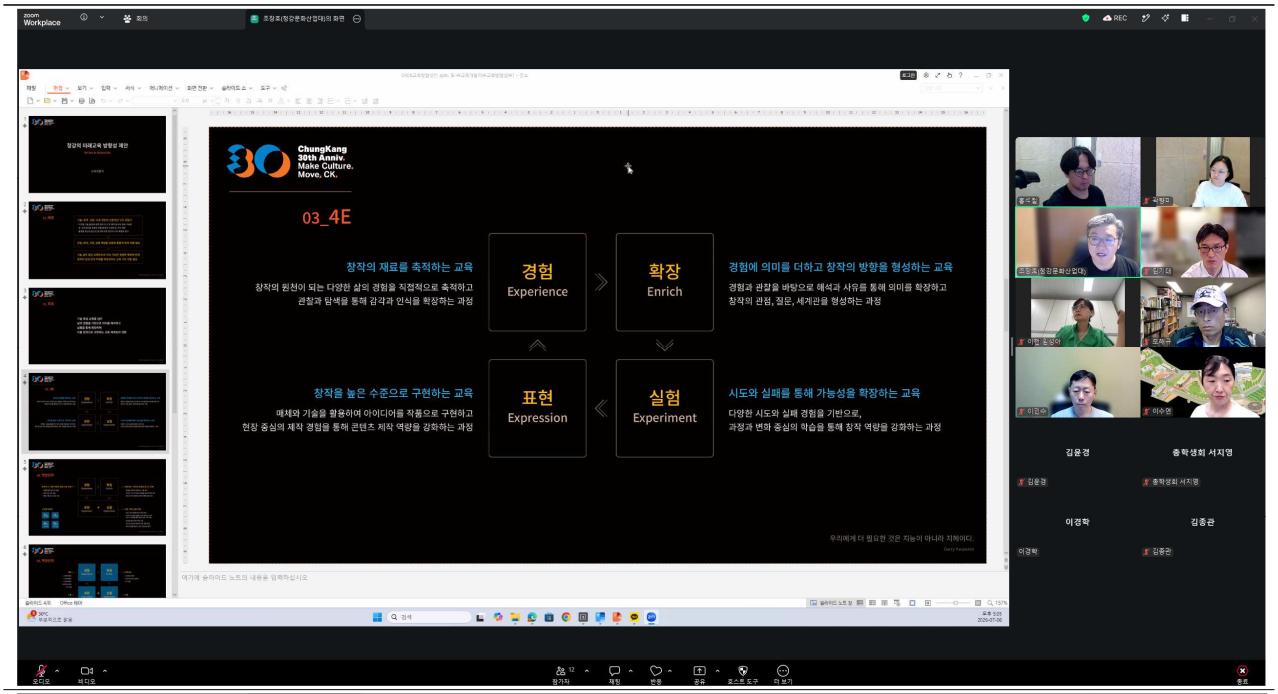
- 이민수: 현재 기존 교과목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과 교수 의견을 종합하여 40개의 신규 과목을 개발한 상태이며, 개발 교과목은 심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하여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이경학 의장: 위원들에게 질문이 있는지를 묻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가 심의기구 인지 자문기구 인지를 질의하다. 조장호 처장의 답변으로 심의기구임을 확인하고 심의기구라면 찬반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자료에서는 심의 결과를 찾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조장호 처장: 이번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는 심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음을 설명하고, 평의원회에도 현재는 심의가 아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점을 설명하다.
- 이경학 의장: 이번 교양교육과정 개발에 관하여 스쿨에 별도 설명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이민수: 8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실 것을 요청하다.
- 이경학 의장: 위원들에게 질문 및 당부사항 등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모해규: 필수 학점이 15학점이 되면 이수학점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설명을 요청하다.
- 이민수: 시뮬레이션한 결과로는 평균 18학점 정도 수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모해규: 교양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과목들이 어떻게 새롭게 편성되고 스쿨의 전공 수업과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장호: 교양교육으로 학생들이 14~18학점을 이수하는 것처럼 전공 교과도 졸업 이수학점은 80학점이지만 학생들이 실제로는 9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있어서 우리 대학의 전체 졸업학점인 117학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공 교과와 교양교육을 제외하고 약 10학점 정도의 쿠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설명하다.
- 이경학 의장: 우리 대학의 HUSS 사업 등 외부와 같이 개발한 교과목들도 있으니 산학협력단과도 상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경학 의장: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교육개발처 조장호 처장에게 추가 설명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조장호 처장: 향후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며, 대학평의원회에도 자문, 심의를 요청드릴 예정임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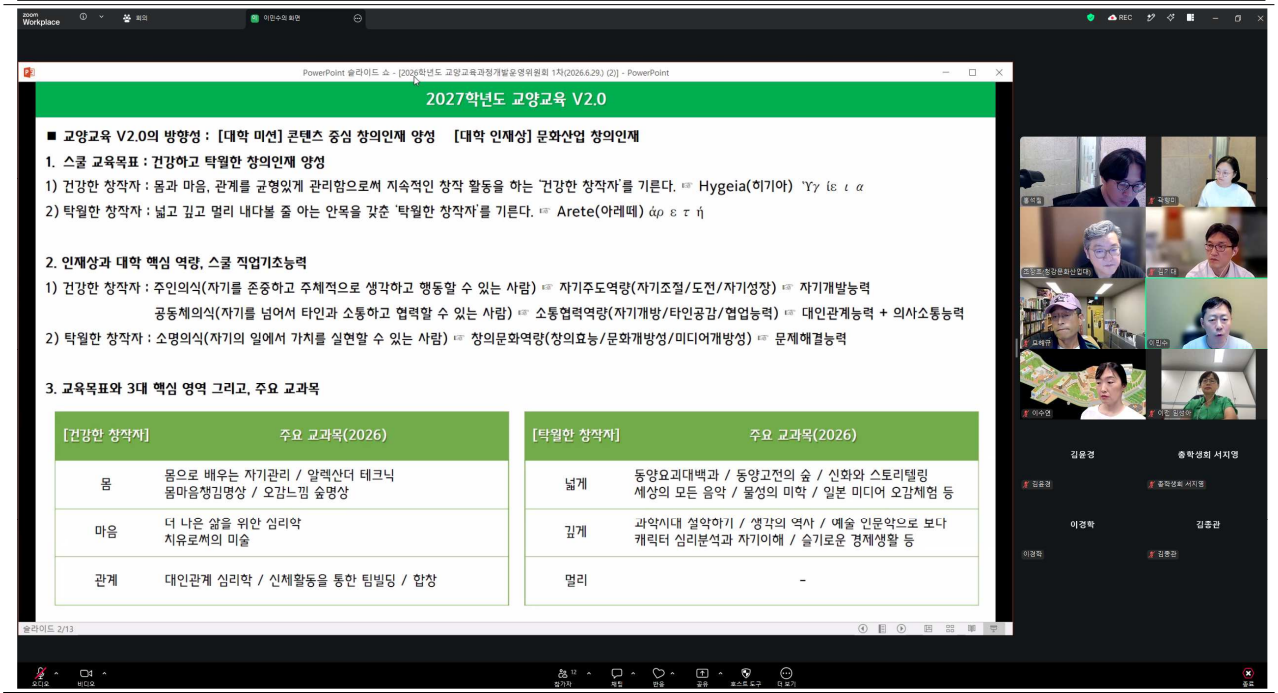
폐회선언: 추가 안건 및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17시 30분)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6년 7월 6일

회의사진


ChungKang
30th Anniv.
Make Culture.
Move. CK.
03_4E
창작의 재료를 축적하는 교육
창작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축적하고
관찰과 탐색을 통해 감각과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
경험
Experience
확장
Enrich
경험에 의미를 더하고 창작의 방향을 형성하는 교육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석과 사유를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창작의 관점, 철문,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
창작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교육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제작 경험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표현
Expression
실험
Experiment
시도와 실패를 통해 가능성을 확장하는 교육
다양한 시도와 실패 경험을 기반으로,
과정과 변화 중심의 학습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김윤경
총학생회 서지영
이경학
김종관


2027학년도 교양교육 V2.0
■ 교양교육 V2.0의 방향성 : [대학 미션] 콘텐츠 중심 창의인재 양성 [대학 인재상] 문화산업 창의인재
1. 스쿨 교육목표 : 건강하고 탁월한 창의인재 양성
1) 건강한 창작자 : 몸과 마음, 관계를 균형있게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건강한 창작자'를 기른다. ☞ Hygeia(히기아) Ὑγ ίε ι α
2) 탁월한 창작자 : 넓고 깊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춘 '탁월한 창작자'를 기른다. ☞ Arete(아레떼) ἀρ ε τ ή
2. 인재상과 대학 핵심 역량, 스쿨 직업기초능력
1) 건강한 창작자 : 주인의식(자기를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 자기주도역량(자기조절/도전/자기성장) ☞ 자기개발능력
공동체의식(자기를 넘어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 ☞ 소통협력역량(자기개방/타인공감/협업능력) ☞ 대인관계능력 + 의사소통능력
2) 탁월한 창작자 : 소명의식(자기의 일에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창의문화역량(창의효능/문화개방성/미디어개방성) ☞ 문제해결능력
3. 교육목표와 3대 핵심 영역 그리고, 주요 교과목
[건강한 창작자] 주요 교과목(2026)
몸 몸으로 배우는 자기관리 / 알렉산더 테크닉
몸마음챙김명상 / 오감느낌 숲명상
마음 더 나은 삶을 위한 심리학
치유로써의 미술
관계 대인관계 심리학 / 신체활동을 통한 팀빌딩 / 합창
[탁월한 창작자] 주요 교과목(2026)
넓게 동양요괴대백과 / 동양고전의 숲 / 신화와 스토리텔링
세상의 모든 음악 / 물성의 미학 / 일본 미디어 오감체험 등
깊게 과학시대 철학하기 / 생각의 역사 / 예술 인문학으로 보다
캐릭터 심리분석과 자기이해 / 슬기로운 경제생활 등
멀리 -
김윤경
총학생회 서지영
이경학
김종관